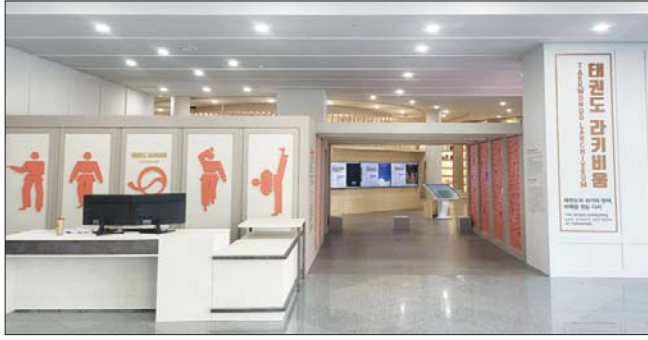


태권도 라키비움, 오프라인서 만나다

태권도진흥재단, 내달까지 복합문화공간 시범 운영
대형 멀티 키오스크·지혜의 경기장 등으로 구축
국내 외 태권도 교류·연구의 장으로서 역할 수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 라키비움' 포털 사이트 오픈에 이어 14일부터 국립태권도박물관 내에 '태권도 라키비움 복합문화공간' 시범 운영에 나선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해 태권도 관련 정보가 망라된 '태권도 라키비움' 포털 사이트(<https://larchivum.tpf.or.kr/>)를 오픈, '도서 및 각종 증명서' 등의 자료와 '월로와의 대화' 등 2만 3천여 점의 자료를 아카이브 목록화하고 지속 보강해 가는 등 태권도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은 포털 사이트에 이은 연장선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 내에 누구나 손쉽게 태권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

멀티 키오스크와 2,500여권의 다양한 분야 도서, 지혜의 경기장, 아카이브 존, 어린이 라키비움으로 구축해 태권도 과거, 현재, 미래를 제시하고 국내외 태권도 교류 및 연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을 위해 중장기 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과 수장고 건립, 포털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번 복합문화공간 건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태권도원 방문객들에게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내 '태권도 라키비움 복합문화공간' 입구.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인들이 기증해 주시는 유물들이 의미있게 수집·연구·전시되는 태권도 라키비움 복합문화공간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복합문화공간에서 태권도 관련 소장 유물을 선보이는 등 유물의 가치를 전파하고 이

를 통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 역할도 수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은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이 기간 이용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본격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체력 향상·건강 증진

군산 스포츠힐링치료 건강교실 참여 회원들
'군산시장배 단축마라톤 대회' 서기량 발취

군산체육인증센터와 군산시육상연맹이 함께 추진하는 스포츠힐링치료 건강교실 참여 회원들이 '2023 군산시장배 단축마라톤 대회'에서 본인의 체력을 마음껏 뽐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실시된 '2023 군산시장배 단축마라톤 대회'에는 스포츠 힐링 건강교실 참여회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단축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450여명 중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부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뛰고 소통하며 직접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2023 군산시장배 단축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향상된 체력을 보여줬다. 일반부 5km에서 1위를 입상한 김창현(24)씨는 "스포츠힐링치료 건강교실을 통해 엘리트 선수의 다양한 훈련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모든 참여자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배드민턴대회 '큰 호응'

전북체육회서 추진

전라북도체육회가 추진한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배드민턴대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참여, 교류의 장을 넓히고 체육을 통해 하나가 되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배드민턴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했다.



전라북도체육회가 추진한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배드민턴대회가 큰 호응을 얻은 가운데, 참가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수도 등록이 돼 있는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팀을 구성, 승패를 떠나 배드민턴을 배우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초등 4년 이하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이뤄졌다. 또한 참가한 학생과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도 진행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배드민턴 종목 등 운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읍시, 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7개 획득

'론볼' 김승희, 항저우 장애인AG에 이어 체전서 메달 수확

정읍 선수단이 최근 폐막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활약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정읍 선수단은 7개 종목 23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론볼, 보치아, 파크골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7개 메달을 획득하면서 장애인 체육의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론볼 종목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

에 건 김승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보치아에서는 박옥란 선수가 금메달, 게이트볼, 파크골프에서는 은·동메달을 차지했다. 이학수 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체육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항저우 장애인AG·전국장애인체전서 메달 획득

전춘성 진안군수, '육상 전설' 전민재 격려

진안군은 14일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과 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미소천사 전민재 선수를 축하하는 자리를 군수실에서 가졌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22년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전민재 선수는 10월 23일 육상 200m(T36) 경기에서 2위(31초27)를 기록해 대표팀에 첫 메달을 선사한데 이어 26일 열린 육상 100m(T36) 경기에서도 15초2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2위를 하며 또 하나의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전민재 선수는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육상 100m(T36) 경기에서 1위(15초69), 육상 200m(T36) 경기에서 1위(32초87), 육상 400m(T36) 경기에서 1위(1분17초)를 기록하며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전민재 선수는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진안군 진안을 반월리에서 거

주 중이며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적인 선수이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 첫 출전한 이후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장애인아시안게임, 패럴림픽 등에서 많은 메달을 우리나라에 선물했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인아시안게임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 3개, 은 2개를 획득해 대한민국과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한 전민재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전민재 선수가 앞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라북도 1시군 1대표 관광지

승마체험과 관광은 장수의 지름길

장수에서 말 달리자!